東大新聞

發行人 趙明基 · 兼編輯人 李道孫 · 印刷人 朴榮 · 發行所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⑧3130—9

(每週日曜日發行) 六個月分·200원

# 非常戒嚴으로 無期休校

## 開講、試驗日字등 未定 地方은 8月17日 後

## 本校生 20名을 表彰

### 6·3데모時、武器庫지켜

본교를 위시한 全國 各大學은 6·3데모로 因하여 서울 一圓에 宣布된 非常戒嚴으로 5日부터 無期休校에 들어갔다。이로써 大學의 夏期放學은 實質的으로 2個月을 延長實施하게 되었다。또한 7月初에 施行예정이던 學期末考査는 8月 下旬頃으로 延期、施行하게 되었다。그런데 開學日字 및 學期末考査日字는 文敎部와 戒嚴司의 正式通告가 없어 確定되지 않았으나 地方大學이 八月一七日로開學日字가 決定된 것으로보아 서울에있는 各大學의 開學日 字도 別途決定 發表될것으로보인다

3·25韓日屈辱外交를 反對하던 學生데모는 全國的으로 번져 遠2個月間계속、政局不安과社會混亂을 招來하여 마침내 非常戒嚴까지 宣布하게하고 이에 따라 각급학교는 6月5日부터 無期休校에 들어갔다。6月3日 戒嚴宣布와 때를 같이하여 戒嚴軍이 본교등 市內 各 大學을 警備함으로써 極度不安했던 社會混亂은 漸漸 秩序를 恢復했다。

그런데 데모로 因하여 指名手配됐던 本校 『圖書館』 開館은 當局에서 別途指示가 있을때까지 開館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圖書館當局者는 『圖書館 開館은 當局의 指示에 따라 할 것이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 體育基金답지

본교 各種體育의 興을 積極的으로 뒷바침하고 있는 同門들의 體育基金이 계속 還至하고있다。

▲金聖愛 二萬원
▲趙錫鎬 一萬원
▲金光華 一千원
▲金山교 一千원
▲張金宮 四千원

### 學生會 選擧등 開學後로 延期

6月中에 實施豫定이던 本校 總學生會 任員選出등 各種選擧는 休校와 放學으로 因하여 二學期初로 延期 되었다。

### 本校서、新聞界業績讚揚코

趙總長및 學·處長 敎授學生들과 「버거」 駐韓美國大使등 內外貴賓 다수가 참석한 이날式典은 國民儀礼로 시작하여 梁柱東大學院長의 추천사가 있었다。

梁大學院長은 추천사를 通해 『아』敎授의 韓國新聞學界에 바친 공과 韓美文化交流에 이바지한 業績』을 讚揚 특별히 「아」敎授의 「프로이드·G·아아론」敎授(54=美國인디애나大學新聞學敎授)에 대한 名譽文學博士學位授與式이 6월1일오전 11시본교 中講堂에서 열렸다。

<「아」敎授에게 學位授與하는 光景>

<授賞 申敎泰 한림學位>

## 「아」敎授에 名譽文博

### 本校서、新聞界業績讚揚코

지난2日、본교 大學長 梁柱東 大學院長은 前經商大學長 申泰煥교수를 後任 總長으로 推薦 任命하였다。

申敎授는 30餘年 敎育界와 經濟學硏究 공헌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申교수는 前任 總長 後進 육성과 學問 後輩 위하여 기여할 것이다。

申敎授는 오전10時부터 學內人士들이 參席한 가운데 開式辭가있었다。

梁柱東 大學院長의 開式辭에 이어 교무과장의 敎授履歷 朗讀이 있었다。

梁院長은 申敎授의 學·人格·業績·敎育·學問·社會·國家·人類에 대한 貢獻을 높이 평가하여 學位證書를 授與하였다。

申敎授는 이날 受賞 후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이 영광은 모두 저의 스승 및 동료들의 교육과 후배들의 훈육의 결과이니 이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서울大 總長에 申泰煥敎授 名譽經傳 授與

基總長으로부터 「아」敎授에게 學位証書가 授與되었다。또한 總長으로부터 紀念品(금반지)·胸星도 있었는데 「아」敎授는 受賞者로 결정되어 오는17日 本校 中央圖書館은 戒嚴宣布로 문을 닫은 本校 中央圖書館은 9회 學術院賞 受賞者로 결정되어 오는17日 本校 大講堂에서 열리는 제9회 學術院賞 受賞者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2日 서울大學校 總長에 취임한 申泰煥博士略歷

◇申泰煥博士略歷
▲日本東京商科大學卒業
▲延禧專門敎授
▲東國大學敎授
▲서울大法大敎授
▲韓國經濟學會長
▲美國務省招請交換敎授로 渡美
▲서울·11·12回司法科高考試委員
▲法大學長
▲서울大學行政大學院長
▲建設部長官
▲經濟企劃院中央經濟審議委員
▲東大敎授
▲東大經商大學長署理
▲經濟科學審議會議長
▲印權植君受賞
▲全國化學討論會서 지난 5월27일 上午10時 成均館大學校에서 第二回 全國大學化學會硏討論大會가 열린 文理大 印權植(化學硏究室)君은 「Hydrogen Bond」란 論文을 發表하여 最優秀賞인 成大總長賞을 받았다。

## 六、七月에 두名博誕生

## 金益相君 最高得點 本校生 25名 合格

### 第1次司法試驗

지난 5월 22일 施行한 제18回 司法試驗에 本校生 25名이 合格하였다。

本校生은 1名이 合格者로 採點되었다。

▲朴道根(商4)君은 軍法務處에서 實施한 第三回司法試驗 最高得點者로 92점을 얻어 首席(合格者 33名中 1백점 만점)을 차지했다。

▲金益相君은 第三回司法試驗 最高得點者로 92점을 얻어 首席(合格者 33名中 1백점 만점)을 차지했다。

▲法政大 金益相君은 第三回司法試驗 最高得點者로 92점을 얻어 首席(合格者 33名中 1백점 만점)을 차지했다。

▲崔聖煐(經·卒業)君은 第一次試驗에 對備하기 위해 지난 1년간 前記司法科 1次試驗에 合格한 者는 總 25名이다。

▲徐建錫(〃)君은 第一次試驗에 合格하여 58%의 좋은 成績을 보였는데 特히 應試한 7名이 合格하여 58%의 좋은 成績을 보였는데 特히 應試한 7名이 合格하였다。

▲崔昌淳(商4)君은 經理將校로 特採되었다。

▲鄭龍根(商4)君은 8日字로 陸軍本部에서 經理將校로 特採되었다。

▲朴道根(商4)君은 計理士資格本試驗에 在學生6名이 合格者로 採點되었다。

▲鄭龍根(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朴道根(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金亘年(〃)君은 計理士 試驗에 合格하여 卒業生 1名이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朴道根(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崔聖煐(經·卒業)君은 計理士 試驗에 合格하여 卒業生 1名이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朴道根(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鄭龍根(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崔昌淳(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 計理士에 七名 合格

#### 四名은 經理將校로 特採

6月에 施行한 제18回 計理士資格本試驗에 在學生6名이 合格者로 採點되었다。

▲朴道根(商4)君은 軍本部에서 經理將校로 特採되었다。

▲鄭龍根(商4)君은 8日字로 陸軍本部에서 經理將校로 特採되었다。

▲崔昌淳(商4)君은 計理士 試驗에 合格하여 卒業生 1名이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朴道根(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鄭龍根(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崔昌淳(商4)君은 計理士 考試의 合格者를 보면 다음과같다。

### 二名正式起訴 八名은拘束中

3·25데모이후 6·3데모까지 不法集會와 示威에關한 法律違反으로 拘束된 本校學生은 金實(農經4)君을 비롯하여 8名이다。그런데 이들은 아직 正式 起訴가되지않고 現在 被疑事實을 審議中이다。한편 5·20民族的民主主義 장례식및데모 關聯者로 起訴된者는 李元範(行4)朴東仁(政4·不拘束)君等 2名이다。拘束된 本校生은 다음과같다。

◇拘束者名單
金實(總會長·農經4)
張長淳(法4)金京男(政3)魚誠愚(政4)
朴熙富(法4)金榮興(法4·法政大會長)李鎭卓(政1)劉昌一(商3)

### 戒嚴令宣布로 圖書館 休館

戒嚴軍이 學校에서 撤收한지 一週日이 지난 現在 開館하지않고있다。

그런데 데모로 因하여 本校 『圖書館』 開館은 當局에서 別途指示가 있을때까지 開館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圖書館當局者는 『圖書館 開館은 當局의 指示에 따라 할 것이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 朴勝萬敎授에 學術院賞授與

▲金聖愛 二萬원
▲趙錫鎬 一萬원
▲金光華 一千원
▲金山교 一千원
▲張金宮 四千원

### 體育基金답지

본교 各種體育의 興을 積極的으로 뒷바침하고 있는 同門들의 體育基金이 계속 還至하고있다。

▲金聖愛 二萬원
▲趙錫鎬 一萬원
▲金光華 一千원
▲金山교 一千원
▲張金宮 四千원

自然科學部門 功勞賞을 받게됐다。36年間 育種學을 硏究하여 改良發見한 朴品種을 改良發見한 朴敎授는 「學術院賞」을 受賞한것은 앞으로의 精進을 促勵해주는 것이니 보다 育種學硏究에 盡力하겠다고 入賞소감을 말했다。

이번에 學術院 自然科學部門 功勞賞을 받게된 朴敎授는 본교에 位者인사에서 『오늘의 이 영광은 모두 저의 스승 및 동료들의 교육과 후배들의 훈육의 결과이니 이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農漁村 찾는 奉仕隊

#### 學校當局 10日、六個班으로 編成코 向發

#### 鄕土建設에 盡力要望

農漁村의 現代化와振興을위해 奉仕隊를 編成、農漁村을찾아 奉仕活動을 展開한다。

이번 여름 방학중 본교 奉仕隊員의 奉仕活動은 農漁村의 現代化와振興을위해 奉仕隊를 編成、農漁村을찾아 奉仕活動을 展開한다。

이번 여름 방학중 본교 奉仕隊員의 奉仕活動은 農漁村의 現代化와振興을위해 奉仕隊를 編成、農漁村을찾아 奉仕活動을 展開한다。

10日부터 20日間 京畿道 廣州郡 五浦面文衡里를 비롯한 6個地區에서 展開될 奉仕隊員은 다음과같다。

◇拘束者名單
金實(總會長·農經4)
張長淳(法4)金京男(政3)魚誠愚(政4)
朴熙富(法4)金榮興(法4·法政大會長)李鎭卓(政1)劉昌一(商3)

### 戒嚴令宣布로 圖書館 休館

戒嚴軍이 學校에서 撤收한지 一週日이 지난 現在 開館하지않고있다。

그런데 데모로 因하여 本校 『圖書館』 開館은 當局에서 別途指示가 있을때까지 開館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圖書館當局者는 『圖書館 開館은 當局의 指示에 따라 할 것이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 朴勝萬敎授에 學術院賞授與



自然科學部門 功勞賞을 받게됐다。36年間 育種學을 硏究하여 改良發見한 朴品種을 改良發見한 朴敎授는 「學術院賞」을 受賞한것은 앞으로의 精進을 促勵해주는 것이니 보다 育種學硏究에 盡力하겠다고 入賞소감을 말했다。

이번에 學術院 自然科學部門 功勞賞을 받게된 朴敎授는 본교에

<兄弟校結緣記念撮影>

## 「東光學院」과 兄弟校結緣

### 6月22日, 結緣式도 盛大히

본교는 6月22日 佛敎徒인 在日교포인 趙武祖氏가 設立한 安所在東光學院과 兄弟校 結緣식을 벌였다。

兩校의 略歷紹介가 있은 다음 金事務局長으로부터 結緣辭가있었고 이어 「페니드」 交換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東光學院과 本校는 兄弟校로써 學院受援및友誼의 宣揚을 다하기 위해 局長 崔載亨 學生課長 趙東光 學院長 및 咸農漁民과 그들의 實情과 苦衷에 대한 理解가 있어 서로 돕기로 했다。

이번 本校 中學課程을 修了시키는 前記 趙院長의 高等公民學校에 대한 農村指導 方針은 매우 適切하고 少年 少女들에게 東光學院 敎師 및 生徒들이 있다。



<影撮>

## 「東光學院」과 兄弟校結緣

### 6月22日, 結緣式도 盛大히

본교는 6月22日 佛敎徒인 在日교포인 趙武祖氏가 設立한 安所在東光學院과 兄弟校 結緣식을 벌였다。

兩校의 略歷紹介가 있은 다음 金事務局長으로부터 結緣辭가있었다。

▲日本東京商科大學卒業
▲延禧專門敎授
▲東國大學敎授
▲서울大法大敎授
▲韓國經濟學會長
▲美國務省招請交換敎授로 渡美
▲서울·11·12回司法科高考試委員
▲法大學長
▲서울大學行政大學院長
▲建設部長官
▲經濟企劃院中央經濟審議委員
▲東大敎授
▲東大經商大學長署理
▲經濟科學審議會議長
▲印權植君受賞
▲全國化學討論會서 지난 5월27일 上午10時 成均館大學校에서 第二回 全國大學化學會硏討論大會가 열린 文理大 印權植(化學硏究室)君은 「Hydrogen Bond」란 論文을 發表하여 最優秀賞인 成大總長賞을 받았다。

# 自省과 前進의 契機

## —戒嚴과 休校를 當하여—

社說

昨日戒嚴令 外交反對의 旗幟를 들고 튀숭숭하게 大行進을 소용돌이 치던 學生들이 「데모」는 及其也 無效하고 宣布로까지 惡化를 招來하고야말 것이다.

이 不幸한 結果로 말미암아 大學은 休校되었다. 放學을 치르게 되었다. 정녕 우리의 祖國은 이렇게도 서글픈 汚辱의 歷史만을 되풀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같이 허덕이는 生活이 아니라, 정영 즐거운 人生을 어떻게 設爲할 것이냐는 問題삼고 있는 外信을 接할적마다 참으로 눈이 아타까운 회심이 용솟음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啓示하고 있는가 뛰는 울나는 現實을 改善할수 있는 良路도 없는가 煩惱하고 있다. 拔擢의 努力과 慧智의 實踐만이 切實히 要望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社會混亂의 責任을 一部에게만 轉嫁하지말고 政府와 與野政治人과 學生및國民全體가 各者 그 責任을 痛感하고 合心하여 難局을 打開해 나갈것을 決心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질없이 事 要望할것이 아니라 問題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 現狀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땅에서 汚辱의 歷史가 되풀이 되지 않게하기 위하여 깊은 硏究와 熱誠의 努力을해야할 것이다.

이에앞서 于先政府는 國民에게 明確한 信賴받을 提示하고 恒常國民이 信賴할수있는 最善의 方法을取해 왔는가 反省해야 할것이며, 올바른 政黨은 國民에게 올바른 代表를 提示함이 있어야 보다 遠大한 國家民族의 將來를 目前의 政權圖得과 行動이기보다 위해서의 安動을取하 個人人氣에만 치우친 反省해야할것이며, 行 學生은 學生대로 自己들의 動의 無理한 要求만을 招來할것 인가를 深思熟考하였던가 또는 指揮하는 學生들 가지고 이러저러 하던 現狀을 局을 이렇게 되기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서 汚辱의 歷史가 되풀이 되지 않게하기 위하여 깊은 硏究와 熱誠의 努力을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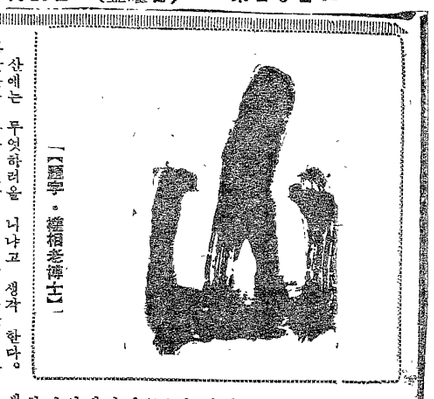
政府는 政府대로 國民에게 明確한 信賴받을 提示하고 恒常國民이 信賴할수있는 最善의 方法을取해 왔는가 反省해야 할것이며, 올바른 政黨은 國民에게 올바른 代表를 提示함이 있어야 보다 遠大한 國家民族의 將來를 目前의 政權圖得과 行動이기보다 위해서의 安動을取하 個人人氣에만 치우친 反省해야할것이며, 行 學生은 學生대로 自己들의 動의 無理한 要求만을 招來할것 인가를 深思熟考하였던가 또는 指揮하는 學生들 가지고 이러저러 하던 現狀을 局을 이렇게 되기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서 汚辱의 歷史가 되풀이 되지 않게하기 위하여 깊은 硏究와 熱誠의 努力을해야할 것이다.

이에앞서 于先政府는

# 山岳과 人生

洪 鍾 仁



「逸話·趙相老博士」

산에는 무엇하러 올라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산이 거기에 있기에 올라갔노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는 가장 평범한 듯 하면서도 뜻깊은 말이라고 하겠다。구태여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아니될 목적 — 석탄을 캐낸다든가 재목을 베어낸다든가 하는 이익을 위한 「산을 즐기기 위한 등산」에는 구태여 등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처음부터 필요치 않을 듯 하면서도 오르기를 즐겁고 산에 오르는 것이 미덕과 그 품안에 크고 넓고 어버이의 깊은 사랑을 산에 안기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산의 맛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그러고 산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 모두 누구나 먼저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산에 오르려고 할때 가질수 있는 마음가짐은 이번 본교 山岳部의 「日本北알프스登攀遠征隊」를 인솔했던 関完植敎授와 一行五名은 25日 동안의 日本行程을 마치고 지난 5월 27일 無事히 歸國했다。解放後처음인 이번 본교 山岳部의 日本登征은 學生園體의 海外遠征이었던만큼 자못 그 意義가 크다。다음은 日本의 이모저모와 山岳活動을 통한 関敎授의 所感을 간추린 것이다。

◇…日本의 山岳活動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키」로 시작하여 「스키」로 끝맺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아마도 6월 중순까지는 눈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北알프스 溪谷에선 「스키」를 즐길 수 있었는데 이번 遠征隊는 裝備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食糧은 보다도 食糧에 있어 넉넉하게 있었으나 달고 싱거운것들이라 대단한 고생을 했다。

◇…日本의 山岳敎授는 지금도 北알프스 登攀隊의 훈련을 쌓고있으며 또 山岳部가 있는 대학은 모두 山岳會를 조직하고 있으며 이 山岳會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울림」 같은 機關誌를 발행하고 있다。

◇…日本의 山岳會에서는 우리나라 크게 歡待해주었다。放送局、新聞社、山岳會、體育會 등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日本의 山岳交流는 치음이라고 大大的으로 宣傳해주었다。그리고 「지금 日本에서도 우리나라의 山에 오고 싶다」고 하며, 이번 우리의 渡日을 앞으로 자주 交流를 갖자고 하며 特·日親善을 말들마다 강조하더라고。

世代가 바뀌어 日本—。웬만한 職場엔 대개 30代가 課長級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學生들은 政治에 대해 우리나라 學生과 같이 無關心이 아니라 오히려 政治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색이다。

敎授는 지적했다。

◇…「日本에 가서 보고 무엇보다 부러웠던것은 일자리보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드군요。」

20年만에 日本에 다시 가보았다는 関敎授는 해방전보다는 훨씬 발전해 있음을 보았고 놀랐다던서 「그 동안 이 敗戰後 오늘같은 經濟復興을 이루기까지는 눈물나는 노력이 숨어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본교 登攀隊가 처음 日本에 당자 그리 一行을 크게 歡待해주었다。放送局、新聞社、山岳會、體育會를 찾아다니며 韓·日間의 山岳交流는 치음이라고 大大的으로 宣傳해주었다。그리고 「지금 日本에서도 우리나라의 山에 오고 싶다」고 하며, 이번 제기로 交流를 轉·日親善 강조하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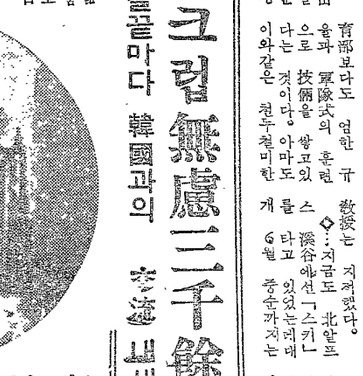
◇…「日本에 가서 보고 무엇보다 부러웠던것은 일자리보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드군요。」

敎授는 해방전보다는 훨씬 발전해 있음을 보았고 놀랐다던서 「그 동안 이 敗戰後 오늘같은 經濟復興을 이루기까지는 눈물나는 노력이 숨어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본교 登攀隊가 처음 日本에 당자 그리 一行을 크게 歡待해주었다。放送局、新聞社、山岳會、體育會를 찾아다니며 韓·日間의 山岳交流는 치음이라고 大大的으로 宣傳해주었다。그리고 「지금 日本에서도 우리나라의 山에 오고 싶다」고 하며, 이번 제기로 交流를 갖자고 하며 特·日親善을 강조하더라고。

# 山岳과 軍隊式 訓練은

## 嚴格한 우리 遠征隊를 大大的으로 宣傳



【日本 北알프스를 오르는 本校 登攀隊】

# 山岳에 세워진 人間愛

## 山岳그림 無慮三千餘

## 말끝마다 韓國과의 友誼 내세워



# 山岳詩人 金時習

## 逸話와 山行詩를 더듬어

相 弼 襄

金時習이 살던 時代的 背景은 한결같이 平和와 自由가 잠들어 있었던 莊園時代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다。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는 俗世에 附和하지 않고 傷時憤玩의 心을 지니고 世俗을 嘲笑하며 八道의 名山을 玩賞하고 放浪으로써 마치게 되었다는것이 그의 爲人이 너무나도 豪放하고 英邁한 것이? 그뿐 아니라 平生 憂愁의 心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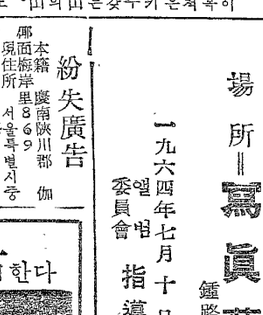
# 山行即興詩만도 數千首

## 特出한 山水放浪詩人

# 山岳에 세워

# 山岳人의 姿勢

朴 繁 雄



# 公告

梵山 金法麟博士遺稿蒐集

梵山 金法麟博士의 크신 學德과 높으신 精神을 기리 빛내기 위하여 本 編纂室에서는 遺稿集 刊行計劃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各種資料 蒐集하고 있아오니 江湖諸賢의 많으신 協助가 있으시기 仰望하나이다。

記

一、蒐集種目… 梵山先生의 原稿가 揭載된 雜誌 新聞 單行本 個人書簡 揮毫 寫眞 其他資料 (但 日帝治下와 六·二五動亂前의것)

一、蒐集雜誌

佛 敎 誌=日帝時 韓龍雲 權相老先生이 發行하셨던것

佛靑運動 誌=佛靑運動社刊

金剛杵 誌=朝鮮佛敎 東京留學生會서 刊行된것

新生佛敎 誌=一九四六年 頃부터 張道煥씨가 發行한 雜誌로써 後에 「佛敎」誌로 改題된것

右記 資料나 雜誌를 所 하신 분이 本 編纂室에 連絡해 주시면 貸與후 厚謝하거나 高價로 買入함

附記·特히 梵山先生의 親知되시는 분의 逸話및 資料提供을 仰望함

西紀一九六四年七月十日

金法麟博士遺稿集編纂室

서울特別市中區筆洞三街二六

東大新聞社

連絡處 ③三一三〇—九·四三〇一—四

서울特別市唐珠洞三七의三

金 仁 鴻

# 公告

卒業班學生에게

卒業「앨범」個人 人物寫眞撮影에 關하여

앨범製作 指定寫眞館에서는 放學中에도 卒業班生들의 앨범寫眞을 撮影하고 있아오니 四學年生中에서 個人人物寫眞을 撮影하지 않은 學生은 放學中 全員 撮影을 完了하기 바람

但 撮影券을 配付받지 않은 學生도 撮影할수있음

場所=寫眞藝術苑

鍾路二街鍾路圖書館越便 電話(74)3018

一九六四年七月十日

앨범委員會 指導委員會 委員長 白


# 就職英語外四

菊版 450面 特殊紙半洋裝 값 400원

時事英語社

一流職場의 就職은 英語實力이 左右한다

政府各機關, 國營企業體, 各銀行, 高等考試, 各種 昇進 및 資格考試, 海外留學, 一流民間企業體等 200個所에서 1961~64年까지 出題된 問題를 綜合, 精選, 分類하여 徹底한 解說을 부친 社會로 가는 指針書! (「時事英語硏究」定期愛讀者에 限해 本社에서 二割引 함)

# 어떤 廣場의 파노라마

朴鎭煥 (上)

論壇

序論

모두가 面하고 걷는 廣場

우리의 廣場에 들아올 수 없다는 事實이겠읍니다。

여기는 戰消地域의 受難地。失意의 廣場입니다。風蘭의 遺產마저 아우리 現實입니다。△꽃한송이 피어낼 地球도 없고 △不帰 不歷 다서 不帰△의 그런 슬픈廣場인지도 모릅니다。

이 廣場에서 우린 和 줍웅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의 우리 詩의 廣場을 수놓은 지극히 서글픈△파노라마△라 하겠읍니다。여기 몇개의 周知의 사실입니다。

저마다 높은 城을 쌓고 그들의 玉座는 오만한입니다。

그들의 城에 모인 많은 入住者들과 더불어 圖畫師의 塵性을 만용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言語의 鍊金師요、渡金師들입니다。

그들의 曲藝는 흘흘하면서도 그들은 슬프게도 앞을 못보는△삐에로△들입니다。

悲劇은 좀더 큰 矢明에 있읍니다。

그것은 그들이 分明 눈을 가지고도 現實을 보지 못한다는 事實입니다。그래서 그들은幸福하게도 戰爭과 폐허와 계 삶을 제가 外面하고 그들만의 높은 牙城에서 嘆息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千年江을지너 移住할 때 靈魂은 꽃喪 與에 태워 흘러 갔아 있는 廣場에서 그들 이 原色의 슬픈 우화는 우리의 生存할 수 있는 共存할 수 있는 王國으로 버리고 도 모릅니다。△소돔△城 △不帰 現代 그들만의 王國으로 도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寓話가 아닌 現代의 廣場에서 생겨난 原色 것임니다。△파노라마△를 한번살 보았으면 싶읍니다。

## 一景

하여 쫓아지는 그런도 우화라 하겠읍니다。

그들 眞善美를 모였나 싶읍니다。貴族中 貴族들의 모이 貴族들이 상놈만이 모 여사는 우리의 廣場에 차마 눈뜨고 共存할수 있었겠읍니까。

그래서 그들은 失明의 悲劇을 알면서도 그 王城으로 들아갔 싶읍니다。

그들은 分明 貴族답게 品位도 있고 믿고 또 羨望의 的인줄로 싶은것은 우리의 바라고 있읍니다。그러나 共同

## 遺產을버려야할때

新羅의 하늘은 自殺的인것

## 詩壇엔 曲藝가 亂舞

生의 거긴 儒佛仙의△광석△가 있고 무한히 개방된 言語가있읍니다。

거긴 아직도 소리를들을 수있고 또 永遠과의 對話도 可能하다는 新羅의 하늘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한 우리 이웃들이 있읍니다。

거긴 아직도 백결선 鄕歌의 멋진 노래가있고 또 치마자락 끌며 王의 예지도 거기있읍니다。퍽 산만한 곳인가 봅니다。결국 그들이 우리의廣場을 버리고 新羅의 하늘로 돌아간것은 充分한 理由입니다。

그들은 金도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란△잉크△가 묻어나오는 그러면서도 찍은 金조각의빛을 發

廣場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싶읍니다。

廣場을 노래해줬으면싶읍니다。언제고 歸路는 開放돼있는줄로알고 있읍니다。

늦기前에 自殺行爲의 新羅의 하늘에서 돌아와줬으면 싶읍니다。永遠한 來日의 美學이고 現實은 오늘의 美學인줄로 압니다。그다지도 不安하게 보입니다。

## 二景

「괴테」와 「칸트」가 다른건 前者는 詩人이고 後者는 哲人이라는 區別을 내릴때 가장선명해지지않을까 싶읍니다。누구나 잘아는사실이지만 왜 개중엔이 이름을 혼동하고 계시는분이있는지 딱합니다。詩人의 哲學이 훌륭한 眞理와 眞實에의 探究이면서도 詩와 哲學의 別하는것은 使命이 다른 때문입니다。

이해하겠읍니다。그런데 혼동하신분들이 모조만 城이우리의廣場에 있읍니다。

姿勢는 超然한 명상하는 멋을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妙 隣國에서 移越하신 不分明한분사 그런이 行勢 모르겠 하기에 편한진 읍니다만 어딘가 不安 읍니다。

그래서 그들의 特徵입니다。

族譜

## 三景

王家의 終末을 우린 서글픈 表 沒落하는 情으로 바라보고 있읍니다。

그들은 遺產을거두 한 자리를 내어줄을 爲 開放된 共和國이란 듯이 어 들아간 王朝의 時 代는 幕이 내렸고 그 遺產 습니다。이제 意味의 價 値를 지닌채 이 廣場 博物館에 남아있을뿐입니다。

그들은 꿈속에 살고 있읍니다。

朝鮮의 王統派들은 愛護家 族譜를 알찬 분명합니다。

風蘭의 그들은 正 옛날엔 王家의 후 예들은 靈魂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 다니고 있읍니다。

「칸트」에 「괴테」와 「칸트」에依 한 私生兒의 모를말 수있읍니다。分明히 詩가 哲學 있어도 있어도 哲學이 詩의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그 詩人이며 詩를 써야한다는意味이기도 합니다。分明히 말씀드리 지만 어서 分明한 國 籍을 擇해주셨으면 합니다。곧 우리의 廣場 에 있는 언제고 당신들을爲 한 자리를 내어줄 수있읍니다。

## 詩壇엔 曲藝가 亂舞

「바람과함께 사라지다」<美>

스크린

美國의 北戰爭 背景으로 戰爭「씬」

南部의 廢墟위에 한貴族 女性이 野 獨立戰爭 「스카렛트」

「바람과함께 사라지다」는 어떻게 오하라는 人間像을 그린 「마가렛트·미첼」女士의原作小說의 映画化 出版 첫날부터 5만부가 날개가 돋혀 賣 渡 삶 헤쳐나 있었는지 그들은 이 救援 그들이 援 수없는 그들은 이 救 援 援 援